Journal of the Korea Fashion & Costume Design Association
Vol. 24 No. 3 (2022) pp. 17~31
https://doi.org/10.30751/kfcda.2022.24.3.17

스텔라 맥카트니 니트 디자인에 표현된 친환경 디자인 특성

이연희 · 박선희*†
한양대학교 의류학과 휴먼테크융합전공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패션디자인 전공 교수*†

Eco-Friendly Design Characteristics of Stella McCartney's Knit Design

Younhee Lee · Sun-Hee Park*†
Professor, Major in Human-Tech Convergence, Dept. of Clothing & Textiles, Hanyang University, Korea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Ewha Womans University, Korea*†
(2022. 8. 16 접수; 2022. 8. 22 수정; 2022. 9. 6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diverse directions for eco-friendly knit designing through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Stella McCartney's knit designs. The first stage of the research was to explore the characteristics of eco-friendly fashion design based on literature review. The next stage was to categorize the characteristics of eco-friendly design found in Stella McCartney' knit fashion based on the precedent analysis. The data collected showed 274 examples from 40 Stella McCartney collections, including Spring, Resort, Pre-Fall, and Fall Ready-to-wear collections between 2013 and 2022. All information was collected using www.vogue.com. As a result, the characteristics of Stella McCartney's knit design were classified into four directopms: 1) Perpetual Naturalism, 2) Cultural Complexity, 3) Practical Functionality, and 4) Subcultural Reproducibility. The first characteristic, 'Perpetual Naturalism' values the continuous symbiosis between animals and human beings, thereby protecting global environmental value. Stella McCartney's knit design continuously showed a longing for nature's beauty through fashion design, which allowed people to enjoy the meaning of symbiosis between human beings and animals. Second, 'Cultural Complexity' is the characteristic that appears in Stella McCartney's knit fashion design when collaborating with various artists and/or mixing traditional knit motives inspired by traditional cultures and retro moods. Third, 'Practical Functionality' is the design characterisitic that allows items to be worn for a long time as it is comfortable, simple, and practical. Stella McCartney's knit designs pursue easy-to-wear designs that are comfortable and have practical designs with simple details. Lastly, 'Subcultural Reproducibility' showed in Stella McCartney's knit designs reflect Hippie culture, which pursued a rejection of conventional values, and promoted sustainable energy. This culture peaked in the 1960s and 1970s, when 'Beatles' were mainly working. Additionally, retro styled knit designs inspired by other various music genres from the 1980s and 1990s appeared in this category as well.

Key Words: Eco-Friendly Design (친환경 디자인), Knit Design (니트 디자인), Stella McCartney(스텔라 맥카트니)

† Corresponding author ; Sun-Hee Park
Tel. +82-2-3277-4474
E-mail : zenyul@ewha.ac.kr

Ⅰ. 서 론

현대 과학과 산업의 발달과 함께 대량생산과 무분별한 소비는 대기오염, 해양오염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와 자원고갈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자연과 환경의 보호는 이제 개인을 넘어선 사회 공동의 문제이며, 인류 문명이 지속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환경에 대한 관심은 20세기 후반에 접어들면서 '환경 친화'의 개념으로 전환되었다. 환경은 인류의 생존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무분별한 산업화는 지양해야 한다는 시대적 패러다임이 형성되었다(이연희 외, 2007).

이에 패션 분야에서도 친환경, 지속가능성 바탕의 주제는 더욱 세분화되고 확장되어 여러분야의 연구와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최근 친환경 디자인은 정신적이고 윤리적인 면까지 고려하는 등 '공동체의 이타 주의적 소비'를 이끌기 위한 좀 더 현실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생산자뿐 아니라 소비자에게도 다양한 선택의 범위를 주어 친환경적 소비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도록 이끄는 계기가 됐다. 이러한 친환경 디자인은 '친환경 디자인'(Eco-Friendly Design) 또는 '에코 디자인'(Eco Design)이라 한다. 친환경 패션 디자인을 에코 패션 디자인의 한 범주로 보거나, 에코 디자인과 친환경 디자인의 맥락을 거시적 관점에서는 큰 구분 없이 보거나(유은옥, 2012).

친환경 패션 디자인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지속가능 디자인부터 최소 폐기물 패션디자인, 윤리적 관점과 친환경 디자인의 가치, 글로벌 친환경 패션 브랜드에 대한 연구, 친환경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연구, 친환경 소재 연구 등으로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최근에는 비건 패션과 비건 소재 관련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이해임, 2022). 친환경 패션이나 비건 패션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스텔라 맥카트니(Stella McCartney)가 자주 언급되고 있다(송지예, 2009; 하승연, 2014). 스텔라 맥카트니는 비건 식생활부터 동물 보호 운동과 공정무역, 리사이클링 등 환경적 측면과 윤리적 측면을 고려한 친환경 패션을 전개하고 있는 대표적 디자이너이다. 스텔라 맥카트니는 컬렉션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속가능, 비건, 친환경 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021 Pre Fall 컬렉션에서는 재고 활용 작품을 제작하여 한정판으로 발표하였으며,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여 지구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내용으로 컬렉션을 발표하였다(Anders Christian Madsen, 2021).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스텔라 맥카트니의 니트 디자인에 나타난 친환경 디자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니트웨어를 꾸준히 활용하고 있는 스텔라 맥카트니의 니트 디자인 분석을 통하여 친환경 니트 디자인의 다양한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니트 웨어는 현대 패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니트 소재는 친환경 디자인, 리사이클 디자인을 활용하기에 적절한 소재로 친환경 니트 디자인을 위한 다양한 디자인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를 위하여 친환경 디자인에 대한 문헌고찰과 사례연구를 통해 그 의미를 알아보고 친환경 패션디자인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친환경 패션 디자인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니트 디자인의 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스텔라 맥카트니 니트 디자인의 친환경 디자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스텔라 맥카트니 공식 웹사이트인 'stellamccartney.com' 및 온라인 매거진, 'vogue.com'의 패션컬렉션 자료를 통해 작품을 수집하였다. 자료 수집 범위는 스텔라 맥카트니의 2013년부터 2022년까지 10년간 Spring, Fall Ready-to-Wear 컬렉션과 Resort, Pre Fall의 40개 컬렉션에서 274개의 니트웨어를 수집하였다. 니트웨어의 범위는 스웨터로 불리는 횡편 니트웨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컬렉션 리뷰 자료를 통하여 컬렉션의 컨셉 및 사례를 수집하였다.

Ⅱ. 이론적 고찰

1. 친환경 디자인의 특성

1) 친환경 디자인의 발생 배경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간의 삶은 편리해졌으며 그와 더불어 의학의 발달로 인간의 평균수명을 연장시켰다. 수명 연장에 의한 인구의 증가는 더욱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이에 반해 한정적 자원은 고갈의 위

기에 처하였다. 빅터 파파넥(2009)은 인류가 지난 2천년 동안 소비한 자원의 양은 최근 1백년간 소비한 양의 반에 해당될 정도이며 최근 60년간 6백만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을 소비했으며 이에 지구와 자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웠다. 산업의 비약적 발전은 자원고갈과 생태계 파괴로 이어졌고 무분별한 소비는 지양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발생하게 된 1960년대는 친환경디자인의 태동기라 할 수 있으며, 환경보호 운동은 1963년 반핵운동에서 시작되었다. 디자인 분야에서는 1960년대 후반 이탈리아에서 발생한 '반 디자인운동(Anti-Design)과 함께 대량생산체계가 불러온 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 생산의 대량화, 표준화, 획일화에 대한 반발로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가속화된 계기가 되었다. 디자인의 본질적 의미가 변질된 기능주의에 대한 비판에서 시작한 반디자인 운동과 더불어, 불안정한 사회와 경제의 불균형에서 촉발된 '사회 운동의 확산'은 환경운동을 촉발시켰다(남윤진, 2012).

1972년 UN환경회의 이후 환경인증 개념이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노민주, 김민자, 2012), 1980년대 초반에는 환경파괴의 심각성과 그에 대한 각성이 확산되는 시기로 지구가 공동 운명체라는 자각이 더욱 심화되었다. 1980년대 중반에 프르미에르 비종(Premiere Vison) 소재 전시에서 시작된 소재의 친환경적 접근은 환경오염이나 자원고갈 문제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을 고취시켰으며, 유럽에서는 녹색당의 활동과 지지가 본격으로 높아지기 시작했다. 이 시기 친환경 디자인에서는 내용물을 사용하고 난 후 내용물만 다시 채워 쓰는 리필이 활성화되기도 하였다(문재호, 2013).

1990대에는 세계적으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이 전개되었다. 리우선언(Rio Earth Charter, 1992), 기후변화협약(UNFCCC, 1992), 교토 의정서(Kyoto Protocol, 1997) 등의 제정이 이루어졌고, 그 동안의 경제성장 위주의 정책을 비판하고 환경보호를 위한 대처 방안을 찾기 시작했다. 환경친화(Environment-friendly)와 에코(Eco) 디자인, 친환경제품, 친환경적 소비에 대해 일반인도 더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공론화되기 시작한 것도 이 시기부터이다(문재호, 2013).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친환경은 우리 모두의 사회 공동체를 위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친환경을 넘어선 필(必)환경 이슈가 더욱 저변 확대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과거 절제 없는 소비 습관에서 벗어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미국과 EU 등 선진국들은 제품을 생산할 때 원료를 감하기 위한 디자인 설계를 하고, 발생된 폐기물은 재활용하여 자원의 가치를 높이는 등의 친환경 디자인에 중점을 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의 친환경 디자인은 환경과 인간의 조화로운 공영에 대해 고민하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희생이나 손해가 가지 않도록 합의를 이루는 디자인을 의미한다. 이는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디자인적 유희가 충돌했을 때, 단순히 개인이 공익을 위해 희생하거나 포기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존중해 나가면서 그 지향점이 환경보호로도 이어져 결국엔 개인뿐 아니라 공공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려는 의지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친환경 디자인은 근대 디자인의 흐름 속에 나타난 상업적인 이윤만을 추구하던 수단으로써의 디자인에서 벗어나 자연화경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 그 대안을 제시하고 생태 환경을 지키는 디자인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Kate Faletcher, 2011).

2) 친환경 디자인 특성

1990년 열린 패션 그룹 국제 재단의 환경회의에서는 '하나뿐인 지구, 패션산업과 환경에 관한 대화'라는 주제로 '패션디자이너들이 사용하는 화학섬유의 문제', '패션 문화와 인간성 상실 그리고 문화파괴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유은옥, 2014). 또한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하이패션디자이너들의 친환경 슬로건의 도입은 더욱 활발해졌다. 특히 2005년 기준 런던 패션 위크에 발표된 친환경 디자인브랜드가 5% 미만이었던 것에 비해 2014년에는 전체의 1/3 이상으로 확대되고 있다(Key Note Online, 2015).

21세기의 친환경 패션디자인의 경향을 보면 소재나 재료의 친환경에서 좀 더 광의적인 개념으로 바뀌었다(하승연, 2014). 자연보호와 지구환경을 위해 친환경 소재를 이용해야 한다는 개념과 함께, 인간의 행복과 인간성 회복을 위해 그리고

더 나아가 미래 후손들에 물려줄 자산으로서의 디자인, 지속가능한 디자인, 폐기물을 줄이는 디자인이 궁극적으론 지구의 환경과 미래의 지구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패션에서의 친환경적 경향은 일시적인 트렌드이거나 잠시 유행하다 사라질 문화가 아닌 생산자, 디자이너, 소비자가 모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하는 문화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친환경 디자인, 그 중 패션 디자인의 친환경적 특성은 이미 여러 선행연구에서 논의되었으며 연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홍식(2005)은 현대 패션에 나타난 친환경 디자인과 친환경 마케팅 경향에 관한 연구에서 친환경 디자인은 자연적 원시적 디자인으로 재활용 소재 사용, 친환경 섬유 사용, 친환경적 후가공, 친환경 마케팅 등의 경향을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송지예(2009)는 스텔라 맥카트니 작품을 연구 대상으로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에코-럭셔리의 조형성 연구를 통하여 친환경 바탕의 스텔라 맥카트니의 럭셔리 디자인을 미니멀리즘(Minimalism), 내추럴리즘(Naturalism), 스포티즘(Sportism), 클래시시즘(Classicism) 경향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단순성, 다목적성, 자연성, 전통성의 특성을 도출하였다. 김미금 외(2010)의 연구에서는 현대 패션 브랜드에 나타난 친환경 경향으로 유기농 소재의 사용, 재활용 패션, 그린캠페인의 슬로건 전달 경향으로 분류하여 정리하였다.

박혜원(2012)은 친환경 패션 산업 동향과 쓰레기 발생 감량화(zero-waste)를 위한 실험적 디자인 사례 연구를 통하여 로컬 디자인, 수공예적 디자인, 리사이클과 리디자인, 오가닉 소재 사용, 빈티지 패션과 세컨핸드 의류의 사용, 에코프린팅 활용 등으로 정히여 제안하였다. 나은미(2011)는 친환경적 다기능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연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디자인은 조형적인 모습을 바꿔 또 다른 다자인의 '친환경 패션디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트렌스포머블, 겸용, 다변화 등의 용어로 쓰이며 형태의 변화를 주어 디자인의 심미적, 기능적인 특성을 변화시켜 쉽게 폐기되지 않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

서현수와 김민자(2014)는 친환경 디자인의 특성을 윤리적 특성과 정신적 특성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윤리적 특성은 이성 중심의 '필요를 위한 디자인', '줄이기 위한 디자인'으로 구체화할 수 있으며, 디자인의 기능성에서 편리한 디자인이 지속가능한 사용으로 연결될 수 있고, 장식을 배제한 최소성의 개념이 유행에 민감한 패션업계에서 좀 더 오래 사용될 수 있다. 이는 재활용이나 업사이클링을 통한 재사용이 가능하고 인간의 복지와 건강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감성과 치유를 위한 '감성주의적 디자인'을 친환경 디자인의 정신적 특성이라 하였으며, 자연성을 강조한 디자인으로 자연의 형태를 인공적 가공 없이 도입하여 감성적 편안함을 주며, 각 문화나 사회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선호도를 수공예적 감성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디자인에 표현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디자인되고 제작된 제품은 소유하고 싶은 디자인으로 가치를 지닌다(이연희 외, 2007). 이를 통해 의류가 폐기될 확률은 감소하고 이는 환경의 보호와도 연결된다.

하승연(2014)은 친환경 패션에 나타난 디자인의 특성을 내추럴 스타일, 미니멀스타일, 트렌스포머블 스타일, 스포티브 스타일과 민속풍, 단순성, 클래식, 멀티, 모듈러, 스포츠룩으로 분류하고 외형적 특성과 내부선, 색채 소재 등으로 친환경 디자인의 특성을 정리 분석하였다. 유은옥(2014)은 21세기의 친환경 패션 디자인의 특성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고 구체화했다. 자연주의, 재활용주의 그리고 기능주의로 나누었다. 자연주의적 특성으로는 '자연 지향성 경향, 토속성, 건강 지향성'을, 재활용주의로는 '재활용성과 지속성'을 주요 개념으로 보았다. 그리고 기능주의에서는 '기능 지향성'을 주장했다. 이는 윤리를 바탕으로 하는 디자인이라는 '친환경 패션디자인'의 개념에 포함되며,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생태계의 보존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한 패션디자인의 내적 특성이라 정의했다.

배정후(2016)는 친환경 패션 쥬얼리의 조형적 특성에 대한 연구에서 네크레스를 친환경 재료로 제작하며 '재활용, 자연적, 토속적, 복합적, 다기능'의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이중 재활용성과 자연적 소재와 모티브의 사용, 조합 등이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조형적인 특징으로는 '조화성, 유일성, 영속성, 재현성'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진성찬 외(2017)의 연구에서는 친환경 메시지

〈표 1〉 선행연구에 나타난 친환경 패션의 특성 및 표현 방법

연구자	내 용	표현 특성 및 방법	특 성
유홍식 (2005)	현대 패션에 나타난 친환경 디자인과 친환경 마케팅 경향에 관한 연구	· 자연적 원시적 디자인 · 재활용 소재 사용 · 친환경 섬유 사용 · 친환경적 후 가공 · 친환경 마케팅	자연성
송지예 (2009)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에코-럭셔리의 조형성 연구- 스텔라 맥카트니 작품을 중심으로	· 미니멀리즘(Minimalism), · 내추럴리즘(Naturalism), · 스포티즘(Sportism), · 클래시시즘(Classicism), · 단순성, 다목적성, 자연성, 전통성	단순성
김미금 외 (2010)	현대 패션 브랜드에 나타난 친환경 경향 연구	· 유기농 소재 사용 · 재활용 패션 · 그린캠페인(슬로건 전달)	기능성
나은미 (2011)	친환경적 다기능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 트렌스포머블, 다기능	
박혜원 (2012)	친환경 패션 산업 동향과 쓰레기 발생 감량화 (zero-waste)를 위한 실험적 디자인 사례 연구	· 로컬 디자인 · 수공예적 · 오가닉 · 리사이클 & 리디자인 · 빈티지 & 세컨핸드 · 에코프린팅	다목적성
서현수 (2014)	에코 패션 디자인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에 대한 연구	· 윤리적 특성: 기능성 재활용성 최소성 건강성 · 정신적 특성: 자연성 고유문화성	
하승연 (2014)	글로벌 에코 패션 브랜드의 현황과 상품기획 특성	· 내추럴 스타일: 민속풍 · 미니멀 스타일: 단순성, 클래식 · 트렌스포머블 스타일: 멀티, 모듈러 · 스포티브 스타일: 스포츠룩	전통성
유은옥 (2014)	국내 패션브랜드에 나타난 친환경적 디자인특성	· 자연주의: 자연지향성 건강지향성 토속성 지속성 · 재활용주의: 지속성 단순성 재활용성 전통성 · 기능주의: 기능지향성 자연지향성 건강지향성 지속성	재현성
배정후 (2016)	친환경 주얼리의 조형적 특성	· 친환경 소재 사용: 자연성, 복합성, 토속성, 조화성, 유일성, 영속성, 재현성	
진성찬 외 (2017)	친환경 메시지 전달을 위한 패션 디자인 연구	· 업사이클링 · 폐기물 발생 최소화 디자인 · 친환경 소재 사용 및 대체 섬유개발 · 공정무역 디자인 · 재활용 및 비건 소재 사용	영속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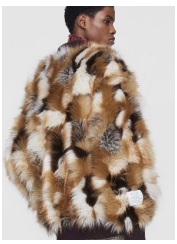
전달을 위한 패션 디자인 방법으로 업사이클링, 폐기물 발생 최소화 디자인, 친환경 소재 사용 및 대체 섬유 개발, 공정무역 디자인, 재활용 및 비건 소재 사용 등으로 제안하였다. 양진숙(2013)의 연구에서는 지금의 윤리적 디자인은 1960년대 인간애를 강조한 히피문화에서 시작하여 펑크, 에콜로지 등의 사상이 발전해 왔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다양한 관점의 친환경 패션디자인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하면 〈표 1〉과 같으며, 친환경 패션 디자인의 특성은 자연성, 단순성, 기능성, 다목적성, 전통성, 재현성, 영속성 등으로 표현되고 있었으며, 친환경 패션의 표현 방법으로는 재활용 소재, 대체 소재의 활용, 슬로건 표현, 수공예 방법, 빈티지와 세컨핸드 제품의 활용 등으로 나타났다.

2. 스텔라 맥카트니 패션디자인

스텔라 맥카트니는 15세 때부터 크리스티앙 라크루아(Christian Lacroix)의 첫 꾸뛰르 컬렉션을

〈그림 1〉
파라벨라
토트백, 2021
(출처:https://www.stellamccartney.com)



〈그림 2〉
퍼 프리 퍼
재킷, 2021
(출처:https://www.stellamccartney.com)

〈그림 3〉
푸퍼 재킷
2004 f/w
(출처:www.vogue.com)

〈그림 4〉
펠트 코트
2008 f/w
(출처:www.vogue.com)

〈그림 5〉
2011 Resort
(출처:www.vogue.com)

〈그림 6〉
2013 Resort
(출처:www.vogue.com)

도왔으며, 영국의 새빌 로(Savile Row)에서 몇 년간 기술을 터득하는 등 패션계에서 오랜 견습 기간을 가졌었다(Vogue, n.d.). 2022 pre-fall 컬렉션에서는 60년대 후반의 실루엣을 언급하며 "아직 태어나지 않은 시기였지만, 그 후 패션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고도 하였으며, 새빌 로에 방문했던 기억을 통해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Anders Christian Madsen, 2022). 스텔라 맥카트니는 1995년 런던의 센트럴 세인트 마틴(Central St. Martins)을 졸업 후 칼 라거펠트의 뒤를 이어 1997년 클로에(Chloe)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 시작해서 클로에를 빈티지풍의 로맨틱 룩으로 변화시켜 현재의 클로에로 변모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였으며(송지예, 2009), 2001년 10월, 파리 컬렉션에서 첫 번째 자신의 컬렉션을 선보이며 친환경 디자이너로 지속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stellamccartney, n.d.).

채식주의자인 스텔라 맥카트니는 2010년 가죽이나 퍼를 사용하지 않는 체인 디테일의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가죽 느낌 소재인 파라벨라 백(Falabella Bag)을 출시하였고(그림 1), 2015년부터 친환경 공정의 페이크 퍼(fake fur)〈그림 2〉 제품에 '퍼 프리 퍼(fur-free-fur)' '스킨 프리 스킨(Skin-Free Skin)' 레이블을 외부에 부착하는 등 비거니즘 바탕의 친환경 패션 제품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또한 2014년 제1회 PETA Vegan Fashion Award의 수상자로 선정되었고, 페타(Peta)를 포함하여 총 9개의 친환경 또는 동물보호 단체를 후원하고 있다(배수정, 2020; 송지예, 2009). 스텔라 맥카트니는 동물 유래 소재의 가죽이나 모피를 사용하지 않고 선구적으로 친환경적이면서 비거니즘 바탕의 윤리적 패션 디자이너로 인정받고 있으며, 아디다스, H&M 등의 다양한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2016년 런던패션대학(London College of Fashion)에서 진행된 '케링 토크(Kering Talk)'에서 미래를 대비한 크루얼티-프리와 친환경 신소재 연구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자연과 함께하는 비건 및 친환경 인식 저변 확대를 위해 기여하고 있다. 2022년 20주년을 맞이하는 스텔라 맥카트니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산업과 정책의 교차 부분을 논의하기 위해 G7에 의해 초청된 10명의 CEO와 창립자 중 한 명으로, 맑고, 의식적이며, 잔혹함이 없는 패션 산업과 지구를 위해 일하는 진지한 디자이너이로 패션을 위해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Nicole Phelpe, 2021).

송지예(2009)는 2002년~2009년 컬렉션의 스텔라 맥카트니 작품의 에코-럭셔리의 조형적 특성 연구에서 미니멀리즘(Minimalism), 내추럴리즘(Naturalism), 스포티즘(Sportism), 클래시시즘(Classicism)의 특성으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단순

성, 다목적성, 자연성, 전통성으로 나타나며 에코-럭셔리의 조형성과 관련성이 있다고 분석하였다. 모피 없는 럭셔리 브랜드의 컬렉션을 상상하기 어려웠던 2004년 가을/겨울시즌에는 푸퍼 재킷(Puffer jacket)〈그림 3〉만으로 시크하고 우아한 컬렉션을 진행했다는 평을 받았으며, 2008년 가을/겨울 시즌 컬렉션에서는 '패션에서 퍼가 필요하지 않다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바치는 쇼'라고 컬렉션을 명명하고 퍼를 대신할 모헤어 니트와 인조 가죽벨트의 프린팅 펠트 코트를 제안하였다〈그림 4〉 (harpersbazaar, n.d.; vogue, n.d.). 또한 스텔라 메카트니의 패션 컬렉션에는 친환경적 표현은 친환경 소재나 비건 소재의 활용과 함께 동물과 식물의 자연을 담은 디자인이 자주 등장한다(그림 5), (그림 6).

스텔라 맥카트니는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A-to-Z 매니페스토(McCartney A to Z Manifesto)를 시작하였으며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제작된 컬렉션의 가이드는 그녀의 브랜드가 상징하는 모든 것을 바탕으로 하며,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기 위한 약속으로 표현하였다(Anders Christian Madsen, 2021).

Ⅲ. 스텔라 맥카트니 니트 디자인에 나타난 친환경 디자인 분석

본 연구는 친환경을 바탕으로 패션디자인을 전개하는 스텔라 맥카트니의 니트 디자인을 조사 분석하여 친환경 니트 디자인을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스텔라 맥카트니 친환경 니트 디자인 특성 분석을 위하여 친환경 관련 선행연구 조사를 하였다. 선행연구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친환경 패션 디자인의 특성은 자연성, 단순성, 기능성, 다목적성, 전통성, 토속성, 재현성, 영속성 등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분석을 위하여 이러한 특성 기준을 바탕으로 스텔라 맥카트니의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의 Spring Ready-to-Wear, Resort, Fall Ready- to-Wear, Pre Fall의 40개 컬렉션을 보그닷컴(vouge.com) 사이트를 통하여 274개의 니트웨어를 수집하였다. 스텔라 맥카트니는 매 시즌 지속적으로 니트웨어를 발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니트웨어의 범위를 스웨터로 불리는 횡편 니트웨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컬렉션 리뷰 자료를 통하여 컬렉션의 컨셉 및 사례를 수집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스텔라 맥카티니 친환경 니트 디자인 특성은 자연과 함께 공존하며 편안함을 기반으로 자연성, 단순성, 기능성, 전통성, 영속성, 재현성 등으로 나타났으며 서로 교차하여 한 디자인에 여러 특성들을 담은 디자인들도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작업들은 친환경 소재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니트 디자인은 원사 소재의 개발이 아직 활발하지 못한 단계로 여겨지며 이에 니트 디자인은 자연의 패턴을 담거나 단순하고 기능적인 디자인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테라 맥카트니의 친환경 니트 디자인 특성은 자연과 함께 영위하는 '영속적 자연성', 다양한 예술과의 전통, 문화적 콜라보레이션 바탕의 문화적 복합성, 편안함을 추구하는 패션의 '실용적 기능성', 과거 60년대~ 90년대의 문화나 음악을 즐기는 '하위문화적 재현성'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첫째, '영속적 자연성'은 동물과 인간의 공생, 지구 환경 수호의 가치관 실현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동물과 환경 보호를 추구하면서 모티브나 소재 외관은 동물과 자연과 함께하는 디자인을 추구하는 것이다. 둘째, 문화적 복합성은 다양한 콜라보레이션과 전통문화 등과의 복합적 디자인 디자인으로 나타나는 특성이다 셋째, '실용적 기능성'은 편안하고 단순하며 실용성을 바탕으로 오래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다. 넷째, 하위문화적 재현성은 비틀즈가 주로 활동한 60~70년대 반전과 저항 문화를 기반으로 했던 히피 문화의 특성과 함께 80년대 90년대의 음악적 영감을 바탕으로 하는 복고적 경향의 특성이 반영된 니트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1. 영속적 자연성

영속적 자연성은 동물과 환경 보호를 바탕으로 디자인의 모티브나 소재의 활용에 동물과 자연을 활용하는 특성이다. 스텔라 맥카트니는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과 디자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비동물성 소재와 식물성 소재를 활용하며 환경에 유

〈그림 7〉
Resort 2015
(출처:www.vogue.com)

〈그림 8〉
Pre-Fall 2013
(출처:www.vogue.com)

〈그림 9〉
Fall 2017
ready-to-wear
(출처:www.vogue.com)

〈그림 10〉
Resort 2017
(출처:www.vogue.com)

〈그림 11〉
2018 Pre-Fall
(출처:www.vogue.com)

〈그림 12〉
Resort 2020
(출처:www.vogue.com)

해한 합성소재의 사용을 지양하며, 식물 및 동물 본연의 아름다움을 패션 디자인에 표현하고 있다. 환경에 유해함을 최소화 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천연 소재, 대안 소재,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면서 자연을 모티브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을 패션으로 누릴 수 있는 효과적인 디자인을 발표하며 친환경성과 유기적으로 연결 되고 있다.

스텔라 맥카트니의 컬렉션에는 꽃, 식물, 자연의 모티브와 함께 동물의 표피 패턴이나 동물의 외관, 실루엣을 형상화하여 표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승마를 즐기는 맥카트니는 말을 형상화한 디자인도 나타났으며, 호랑이, 고양이, 강아지, 거북, 새, 백조, 악어, 뱀, 소 등을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에 응용하며, 비거니즘이 자연스럽게 제품 자체의 매력으로 포함되도록 재미있고 포용적으로 구현했다(이해임, 2022).

2015 리조트 컬렉션에서는 부친 폴 맥카트니의 셔츠에 그려져 있던 새의 모양을 복고적 가디건 니트에 그대로 활용하였으며(그림 7), 2013 Pre-Fall 컬렉션에서도 새의 모양을 아플리케 자수로 작업한 니트웨어를 발표하였다(그림 8). 승마 선수였고 승마를 즐기는 맥카트니는 2017 Fall 컬렉션의 니트에 말의 삽화를 사용하였으며(그림 9), 얼룩말의 프린트를 니트 풀오버의 문양으로 활용하였다(그림 10). 2018 Pre-Fall 컬렉션에서는 밝은 색상의 배색으로 호피 무늬를 자카드 니트 조직으로 제안하여 맹수의 느낌을 화려하고 친근하게 표현하였으며, 또한 포효하는 사자 얼굴을 화려하면서도 직접적으로 활용하였다(그림 11).

2020 Resort 컬렉션은 샤프란 포어(Safran Foer)의 저서 'We Are The Weather'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을 전개하였다. "태양의 둥근 패턴을 바탕으로 날씨, 구름, 비, 태양이 숨을 쉬고 바람이 분다."라고 설명하며, 'We Are The Weather' 모티브는 자유롭고, 떠나고, 믿고, 살고 있다는 문구와 함께 인타시아(intarsia) 니팅과 자수로 디자인되어 풀오버 니트에 활용되었다(그림 12)(Tiziana Cardini, 2019).

2. 문화적 복합성

스텔라 맥카트니는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을 전달하는 복합적인 디자인을 제안하며, 또한 전통적 문화나 과거 지나간 것들에 대한 영감을 바탕으로도 많은 컬렉션을 전개하고 있어 복합적인 문화적

〈그림 13〉
Pre-Fall 2014
(출처:www.vogue.com)

〈그림 14〉
Fall 2014
Ready-to-Wear
(출처:www.vogue.com)

〈그림 15〉
Resort 2021
(출처:https://www.stellamccartney.com)

〈그림 16〉
Fall 2022
Ready-to-Wear
(출처:www.vogue.com)

〈그림 17〉
Fall 2018
Ready-to-Wear
(출처:www.vogue.com)

〈그림 18〉
Pre-fall 2017
(출처:www.vogue.com)

〈그림 19〉
Fall 2018
Ready-to-Wear
(출처:www.vogue.com)

〈그림 20〉
Fall 2019
Ready-to-Wear
(출처:www.vogue.com)

감성을 전달하고 있다.

스텔라 맥카트니는 다양한 예술가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이나 작품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을 자주 발표하였는데 2014 Pre-Fall 컬렉션에서는 영국 예술가 게리 흄(Gary Stewart Humera)의 여성 얼굴과 몸의 그래픽 작품을 니트웨어의 인타시아 편직으로 디자인하여 발표하였다(그림 13). 2014 Fall 컬렉션에서는 오버사이즈 니트 스웨터에 요철감이 형성되는 자수를 형성하여 에너지와 움직임에 대한 맥카트니의 관점을 강화했다(그림 14).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는 자사의 홈페이지를 통하여 맥카트니 A-to-Z 매니페스토(McCartney A to Z Manifesto) 컬렉션을 시작하였다. 이는 A-to-Z 26개의 알파벳 첫자에 자신의 디자인 철학의 내용을 담아 여러 유명한 아티스트들과 연계하여 콜렉션을 전개하였다. 올라푸르 엘리아슨(Olafur Eliasson), 제프 쿤스(Jeff Koons), 샘 테일러-존슨(Sam Taylor-Johnson) 신디 셔먼(Cindy Sherman) 등 다양한 글로벌 아티스트들의 비전을 통해 자신의 패션의 가치에 대해 전달하였다(McCartney A to Z Manifesto, 2020).

A-to-Z 매니페스토 2021 Spring 컬렉션의 화이트 니트웨어〈그림 15〉는 전형적인 스텔라 매키트니의 여성복 스타일로 부드러운 형태의 니트와 바지에 자연스럽게 자유로운 정신이 구현되어 있어 부담스럽지 않고 고급스럽게 디자인 되었다. 이 작품은 중년 여성을 나무로 표현한 신디 셔먼의 기묘한 초상화와 연계하여 디자인되었으며, 소재는 100% 추적 가능하고 숲 친화적인 비스코스로 만들어진다. 스웨덴에서 지속적

으로 관리되고 인증된 숲에서 공급되는 친환경 소재로 제작되는 니트웨어이다(McCartney A to Z Manifesto, 2020). 2022 Fall 컬렉션은 프랭크 스텔라(Frank Stella)와 콜라보레이션의 디자인으로 진행되었다. 프랭크 스텔라의 기하학적이며 단순한 디자인은 볼륨있는 니트 원피스에 적용되었다(그림 16). 스텔라 맥카트니는 오래전부터 프랭크 스텔라 알고 있었고 콜라보레이션을 하고 싶었다고 했다(Anders Christian Madsen, 2022. 7. 3).

스텔라 맥카트니의 니트 디자인은 전통적 니트를 활용한 디자인도 나타났다. 2017 Pre Fall 컬렉션에서는 영국 전통 니트 패턴인 아가일 패턴을 활용한 여성용 니트 원피스를 발표하였다. 블랙과 화이트 컬러를 배색으로 패턴을 바디 부분에 크게 과장하여 가하학적이며 현대적 디자인으로 표현하였다(그림 17). 또한 2018 Fall 컬렉션에는 북유럽 전통 대표적인 니트 패턴인 아란 케이블 조직을 활용하여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컬러를 조합하여 언밸런스 트임과 함께 새로운 니트 디자인을 선보였다(그림 18). 이러한 전통 니트의 현대적 표현은 스텔라 맥카트니의 스타일에 내재된 남성적인 것과 여성적인 것 사이의 지속적인 대화를 표현하고 있다.

친환경을 디자인의 기본 이념으로 가지고 있는 스텔라 맥카트니는 2018 Fall 컬렉션에는 자투리 원사를 활용하여 조각으로 연결한 빅 사이즈의 니트 숄 디자인을 발표하였으며(그림 19), 2019 Fall 컬렉션에는 빈티지 티셔츠를 재활용하여 실처럼 잘라서 다양한 색상의 박시한 니트 원피스를 편직하여 화려하고 독특한 니트 원피스를 발표하였다(그림 20).

3. 실용적 기능성

스텔라 맥카트니는 인터뷰나 컬렉션의 리뷰에서 착용하기 편안하고 실용적이 디자인을 지향하는 내용이 자주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패션의 아름다움을 위해 노력하면서 동시에 실용성, 웨어러블, 그리고 진정한 정직성을 위한 마음으로 디자인을 전개하고 있다(Tiziana Cardini, 2020). 또한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레이션에서 복합적인 문화의 다양성을 나타내면서도 착용을 위한 실용성이나 기능성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프랭크 스텔라와 진행된 2022년 Fall 컬렉션에서 스텔라 맥카트니는 프랭크 스텔라의 미니멀리즘과 극대주의를 사랑하며 맥카트니 브랜드와 매우 유사하다고 설명하였으며(Anders Christian Madsen, 2022. 3. 7), 〈그림 21〉의 디자인과 같이 프랭크 스텔라의 컬러를 활용한 단순하고 실용적인 니트 디자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스텔라 맥카트니의 패션은 실용성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여성성과 또한 여성과 남성의 경계를 없애는 디자인으로 인정받고 있다. 맥카트니는 패션을 통하여 그녀가 가진고 있는 다양한 스토리를 전달하고자 한다(Nicole Phelps, 2014. 3. 2). 2013 Fall 컬렉션의 투피스형의 니트웨어는 남성복에 주로 사용하는 핀스트라이프의 심플한 디자인에 짧은 케이프를 더하여 중성적이며 그녀만의 여성스러운 디자인을 제안하였다(그림 22). 2017 Fall 컬렉션에서는 상, 하의가 붙어있는 편안한 니트웨어에 재킷을 코디네이션하여 실용적이며 편안한 디자인을 제안하였다(그림 23).

2015 Spring 컬렉션의 진한 블루 니트 투피스는 여성스러운 분위기의 편안한 실루엣을 연출하고 있으며(그림 24), 2015 Pre-Fall 컬렉션에 등장한 화이트 컬러의 투피스는 밑단의 비정형작인 크루넥 상의에 스커트 또한 아랫단의 트임을 사이트도 디자인하여 비정형적이지만 니트만의 가지는 유연성을 바탕으로 맥카트니의 실용적인 편안함 디자인으로 표현되었다(그림 25). 2016 Spring 컬렉션에는 다양한 니트웨어가 등장하였는데 〈그림 26〉과 같이 폴로셔츠에 니트를 레이어드하고 니트가 가진 유연성으로 작업이 가능한 튜브 스커트로 여성스러움을 기반으로 스포티한 기능적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다.

2021 Fall 컬렉션은 맥카트니의 A-to-Z 매니페스토 컬렉션의 두 번째 컬렉션이 다. A-to-Z 매니페스토 컬렉션의 가이드는 스텔라 맥카트니 브랜드가 상징하는 모든 것을 굳건히 하며,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더욱 큰 노력을 기울이기로 약속하였는데, 80% 지속가능했으며 모든 의복과 액세서리에 내장된 지속

〈그림 21〉
Fall 2022
Ready-to-Wear
(출처:www.vogue. com)

〈그림 22〉
Fall 2013
Ready-to-Wear
(출처:www.vogue. com)

〈그림 23〉
Fall 2017
Ready-to-Wear
(출처:www.vogue. com)

〈그림 24〉
Spring 2015
Ready-to-Wear
(출처:www.vogue. com)

〈그림 25〉
Pre-Fall 2015
(출처:www.vogue. com)

〈그림 26〉
Spring 2016
Ready-to-Wear
(출처:www.vogue. com)

〈그림 27〉
pre-fall 2021
(출처:www.vogue.com)

가능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특히 이 컬렉션에는 스포티한 특성의 컴포트웨어(comfort wear)의 아이디어를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이 주를 이루었으며(Anders Christian Madsen, 2021. 2. 8), 움직임과 편안함을 기본으로 하는 스텔라 맥카트니의 디자인들로 제안하였다(그림 27).

4. 하위문화적 재현성

과거의 향수를 나타내는 복고적 재현 현상은 패션 트렌드에서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그 중 하위문화 스타일은 현대 패션 트렌드에 접목되어 하이브리드, 에콜로지, 레트로 스타일로 지속적으로 변형되고 재해석되어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다. 오현경과 이연희(2019)의 연구에서는 히피 스타일은 히피들이 크게 활동하였던 1960~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반복 등장하는 중요한 패션 테마로 현대적 요소를 접목시킨 융합적 디자인으로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히피 스타일을 회상시키는 자유롭고 여성스러운 디자인, 자연주의와 안락함에 대한 추구, 복고풍 무드 등의 스타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

스텔라 맥카트니도 히피들의 저항정신을 바탕으로 활동하였던 시절의 자연주의 바탕의 정신을 담은 히피적 분의기를 보여주는 니트웨어를 자주 보여준다. 비틀즈 뿐 아니라 다양한 뮤지션의 음악들과 함께 컬레션을 전개하고 있다. 2021 Resort 컬렉션에서는 가족의 마음가짐과 정신으로, 우리는 지구와 모든 생물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다. 니트 디자인을 통해 즐겁게 표현된 스텔라의 어머니 린다의 화사한 기질에

〈그림 28〉
Resort 2021
(출처:www.vogue.com)

〈그림 29〉
pre-fall 2022
(출처:www.vogue.com)

〈그림 30〉
pre-fall 2022
(출처:www.vogue.com)

〈그림 31〉
pre-fall f/w 2017
(출처:www.vogue.com)

〈그림 32〉
ready-to-wear
fall 2021
(출처:www.vogue.com)

〈그림 33〉
resort 2022
(출처:www.vogue.com)

서 영감을 얻은 풍부한 자수와 손뜨개 느낌의 히피 분의기를 표현하는 인타시아 니트웨어를 발표하였다(그림 28)(Sarah Mower, 2020).

2022 Pre-fall 컬렉션에서도 모친 린다 맥카트니의 영향으로 70년대 여러 히피 요소들을 특징으로 친환경 패션으로 비건 카우보이 부츠와 맞추어진 다양한 컬렉션을 전개하였다(Anders Christian Madsen, 2022). 니트 판초와 드레스에 프린지 장식요소들을 더했으며(그림 29), 데이빗 보위의 복장에서 보여졌던 글램 스타일의 맥시 플레어 원피스와 팬츠는 니트 조직을 잘 활용하여 디자인되어 발표되었다(그림 30). 스텔라 맥카트니의 니트 디자인에는 프린지를 활용한 디자인이 자주 등장하는데 이러한 디자인들은 부모의 활동 시절에 대한 오마주와 향수에 대한 표현으로 사료된다(그림 31).

2021 Fall 컬렉션에서는 대담한 색상, 뒤틀린 모티브, 사이버 텍스처 등을 대담하게 활용하여 사이키델릭한 디자인들이 등장하였는데 자카드 기법을 활용한 니트 투피스도 등장하였다(그림 32). 2022 Resort 컬렉션은 윌리엄 브래들리(William Bradley)의 헤이트 애쉬베리(Haight Ashbury) 사이키델릭 로고 프린트를 활용하여 사이키델릭 무드를 표현하였다(그림 33)(Nicole Phelps, 2021).

Ⅳ. 요약 및 결 론

본 연구는 비거니즘을 바탕으로 친환경 패션디자인을 전개하는 스텔라 맥카트니의 니트 디자인을 조사 분석하여 친환경 니트 디자인의 다양한 방향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스텔라 맥카트니 친환경 니트 디자인 특성 분석을 위하여 친환경 관련 선행연구 조사를 하였으며, 선행연구 조사를

통하여 나타난 친환경 패션 디자인의 특성을 기준으로, 스텔라 맥카트니 니트 디자인의 친환경 특성을 분류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스텔라 맥카트니의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10년간의 Spring, Fall Ready-to-Wear, Resort, Pre Fall의 40개 컬렉션을 보그닷컴 사이트를 통하여 274개의 니트웨어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니트웨어의 범위를 스웨터로 불리는 횡편 니트웨어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컬렉션 리뷰 자료를 통하여 컬렉션의 컨셉 및 사례를 수집하였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정리한 스텔라 맥카티니의 친환경 니트 디자인 특성은 자연과 함께 공존하며 편안함을 기반으로 자연성, 단순성, 기능성, 전통성, 영속성, 재현성 등으로 나타났으며 한 디자인에 여러 다양한 특성들을 담은 디자인들도 주를 이루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스테라 맥카트니의 친환경 니트 디자인 특성은 '영속적 자연성', 문화적 복합성, '실용적 기능성', '하위문화적 재현성'으로 분류 할 수 있었다.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속적 자연성'은 동물과 인간의 공생, 지구 환경 수호의 가치관 실현을 바탕으로 한다. 스텔라 맥카트니는 자연과 함께하는 생활과 디자인을 전개하고 있으며, 비동물성 소재와 식물성 소재를 활용하며 환경에 유해한 합성소재의 사용을 지양하며, 식물 및 동물 본연의 아름다움을 패션 디자인에 표현하고 있다. 환경에 유해함을 최소화 하고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천연소재, 대안 소재,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면서 자연을 모티브로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한 동경을 패션으로 누릴 수 있는 효과적인 디자인을 발표하며 친환경성과 유기적으로 연결 되고 있다.

둘째, 문화적 복합성은 다양한 콜라보레이션과 전통문화 등과의 복합적 디자인 디자인으로 나타나는 특성으로, 스텔라 맥카트니는 다양한 아티스트들과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하여 문화적 감성을 전달하는 복합적인 디자인을 제안하며, 또한 전통적 문화나 과거 지나간 것들에 대한 영감을 바탕으로도 많은 컬렉션을 전개하고 있어 복합적인 문화적 감성을 전달하고 있다.

셋째, '실용적 기능성'은 편안하고 단순하며 실용성을 바탕으로 오래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 특성으로 스텔라 맥카트니는 착용하기 편안하고 실용적이 디자인을 지향하고 있다. 패션의 아름다움을 위해 노력하며 동시에 실용성, 웨어러블, 그리고 진정한 정직성을 위한 마음으로 디자인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실용성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여성성과 또한 여성과 남성의 경계를 없애는 디자인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패션을 통하여 그녀가 가진고 있는 다양한 스토리를 전달하고자 한다.

넷째, 하위문화적 재현성은 비틀즈가 주로 활동한 60~70년대 반전과 저항 문화를 기반으로 했던 히피 문화의 특성과 함께 80년대 90년대의 음악적 영감을 바탕으로 하는 복고적 경향의 특성이 반영된 니트 디자인으로 나타났다. 하위문화 스타일은 현대 패션 트렌드에 접목되어 하이브리드, 에콜로지, 레트로 스타일로 지속적으로 변형되고 재해석되어 표현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스텔라 맥카트니는 대표적으로 이러한 흐름에 자신의 디자인을 표현하고 있다.

스텔라 맥카트니는 최근 2020년 이후부터 더욱 적극적으로 자신의 디자인에 친환경을 더하고 있다. 2022년 컬렉션에는 친환경 소재의 활용이 전체 컬렉션의 80%를 넘기며 폐 의류의 제로화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러나 니트 디자인은 주로 문양이나 친환경 스타일을 바탕으로 디자인으로 자연의 패턴을 담거나 단순하고 기능적인 디자인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이에 니트 소재에 대한 근본적인 개발은 아직 부족하여 재활용 소재 활용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속적인 친환경 니트 소재의 적극적인 개발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미금, 박희정, 간호섭. (2010). 현대 패션 브랜드에 나타난 친환경 경향 연구. *패션비지니스, 14*(4), 185-199.

노민주. 김민자 (2011). 사회적 관점에 의한 슬로 패션의 특성과 미적가치, *한국의류학회지, 35*(11), 1386-1398.

나은미. (2011). 친환경적 다기능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 *복식문화연구, 19*(1), 119-127.

남윤진. (2012). *전환적 발상에 의한 트랜스포머블*

패션디자인 연구, 이화여자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문재호. (2013). 친환경 디자인 로드맵의 구축과 3Key 요소 분석을 통한 친환경 디자인 패러다임 제품디자인 조형변화요인 연구, *한국과학술포럼, 14,* 448-458.

박혜원. (2012). 친환경 패션 산업 동향과 쓰레기 발생 감량화(zero-waste)를 위한 실험적 디자인 사례 연구. *패션비지니스, 16*(4), 29-45.

배정후. (2016). 친환경 주얼리의 조형적 특성-네크레스 디자인을 중심으로, *한국디자인포럼, 30*(30), 285-294.

빅터 파파넥. (2009). *인간을 위한 디자인,* 서울: 미진사

서현수. (2014). 에코 패션디자인의 조형적 특성과 미적 가치에 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4*(1), 69-85.

송지예. (2009). *현대 패션에 나타난 에코-럭셔리의 조형성 연구-스텔라 맥카트니 작품을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현경, 이연희 (2019). 현대 여성 컬렉션에 나타난 히피 스타일의 재현적 특성. *복식문화연구, 27*(4), 336-352.

유은욱. (2014). 국내 패션브랜드에 나타난 친환경적 디자인 특성, *예술문화융합연구, 2,* 25-31

유홍식. (2005). 현대 패션에 나타난 친환경 디자인과 친환경 마케팅 경향에 관한 연구. *한복문화, 8*(2), 11-22.

양진숙. (2013). 재활용 섬유패션디자인에 나타난 조형적 특성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18*(1), 190-198.

이연희, 이현하, 박재옥. (2007). 현대 패션에 표현된 지속가능한 느린 디자인, *한국의류학회지, 31*(1), 21-32.

이해임. (2022). *스텔라 맥카트니 패션에 나타난 비거니즘 특성.* 한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하승연. (2014). 글로벌 에코패션 브랜드의 현황과 상품기획 특성.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16*(3), 219-238.

Anders Christian Madsen. (February 8, 2021). Stella McCartney, pre-fall 2021. 자료검색일 2022. 7. 10,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pre-fall-2021/stella-mccartney

Anders Christian Madsen. (January 10, 2022). Stella McCartney pre-fall 2022. 자료검색일 2022. 7. 10,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pre-fall-2022/stella-mccartney

Anders Christian Madsen. (March 7, 2022). Stella McCartney fall 2022 ready-to-wear. 자료검색일 2022. 7. 10,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22-ready-to-wear/stella-mccartney

McCartney A to Z Manifesto. (2020. 11. 8). McCartney A to Z Manifesto: Spring 2021 Collection. 자료검색일 2022. 7. 20, 자료출처 https://www.stellamccartney.com/kr/ko/stellas-world/mccartney-a-to-z-manifesto-spring-2021-collection.html

Kate Faletcher. (2011). *지속가능한 패션 & 텍스타일,* 이지현, 김수현 옮김, 파주: 교문사.

Nicole Phelps. (June 30, 2021). Stella McCartney resort 2022. 자료검색일 2022. 7. 20,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resort-2022/stella-mccartney

Nicole Phelps. (June 30, 2021). Stella McCartney resort 2022. 자료검색일 2022. 7. 20,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resort-2022/stella-mccartney

Sarah Mower. (October 26, 2020). Stella McCartney resort 2021. 자료검색일 2022. 7. 20,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resort-2021/stella-mccartney

Stella Mccartney, (n.d.), Handbags. 자료검색일 2022. 7. 10, 자료출처 https://www.stellamccartney.com/kr/ko/%EC%97%AC%EC%84%B1/%ED%95%B8%EB%93%9C%EB%B0%B1

Teen Age Fashionwear, (2015. 5. 8). Key Note Online, 자료검색일 2022. 7. 10, 자료출처 http://www.keynote.co.uk/media-centre/in-the-news/display/teenage-fashionwear/?articleId=93

Tiziana Cardini. (January 14, 2020). Stella McCartney pre-fall 2020. 자료검색일 2022. 7. 20,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pre-fall-2020/stella-mccartney

Tiziana Cardini. (June 15, 2019). Stella McCartney resort 2020. 자료검색일 2022. 7. 20,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resort-2020/stella-mccartney

Tiziana Cardini. (January 14, 2019). Stella McCartney pre-fall 2019. 자료검색일 2022. 7. 20,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pre-fall-2019/stella-mccartney

Vogue. (n.d.). Stella McCartney fall 2013 ready-to-wear. 자료검색일 2022. 7. 20,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3-ready-to-wear/stella-mccartney

Vogue. (n.d.). Stella McCartney pre-fall 2014. 자료검색일 2022. 7. 20,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pre-fall-2014/stella-mccartney

Vogue. (n.d.). Stella McCartney fall 2014 ready-to-wear. 자료검색일 2022. 7. 20,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4-ready-to-wear/stella-mccartney

Vogue. (n.d.). Stella McCartney spring 2015 ready-to-wear. 자료검색일 2022. 7. 20,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5-ready-to-wear/stella-mccartney

Vogue. (n.d.). Stella McCartney pre-fall 2015. 자료검색일 2022. 7. 20,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pre-fall-2015/stella-mccartney

Vogue. (n.d.). Stella McCartney spring 2016 ready-to-wear. 자료검색일 2022. 7. 20,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16-ready-to-wear/stella-mccartney

Vogue. (n.d.). Stella McCartney pre-fall 2017. 자료검색일 2022. 7. 20,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pre-fall-2017/stella-mccartney

Vogue. (n.d.). Stella McCartney fall 2017 ready-to-wear. 자료검색일 2022. 7. 20,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7-ready-to-wear/stella-mccartney

Vogue. (n.d.). Stella McCartney fall 2018 ready-to-wear. 자료검색일 2022. 7. 20,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8-ready-to-wear/stella-mccartney

Vogue. (n.d.). Stella McCartney fall 2019 ready-to-wear. 자료검색일 2022. 7. 20,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fall-2019-ready-to-wear/stella-mccartney

Vogue. (n.d.). Stella McCartney resort 2020. 자료검색일 2022. 7. 20,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resort-2020/stella-mccartney

Vogue. (n.d.). Stella McCartney spring 2021 ready-to-wear. 자료검색일 2022. 7. 20, 자료출처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21-ready-to-wear/stella-mccartney